

해외

양돈뉴스

-홍보부-

미국 유타주, 새로운 돼지 생산지로 부각

미국 중서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양돈산업이 거의 발달되지 않은 유타주가 미국의 새로운 돼지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에 유타주는 돼지 사육두수가 '94년에 비해 300% 이상 증가했으며, 동해안의 양돈 그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양돈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5년내에 유타주의 돼지 사육두수는 '94년에 비해 40배 이상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유타주의 돼지 사육두수 급증은 밀포트를 본거지로 하는 서클·포·팜사의 양돈진출에 기인한다.

동사는 최종적으로 모돈 12만두 사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유타주의 모돈 사육두수는 9천두이다.

현재 이 회사는 6천두의 모돈을 보유하고 일관 경영을 하고 있다. 현재 유타주에 모돈 1만4천4백두의 일관경영 양돈장을 건축중인데, 금년 가을에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 또 다른 곳에 건축 중인 모돈사는 4천8백두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유돈사에는 한번에 1만2천두의 자돈을 수용할 수 있고, 1돈사당 1천두를 넣을 수 있다. 자돈은 2주

간격으로 입식된다. 또한 비육농장에는 12만두, 종업원 750명의 대단위 양돈장을 유타주에 운영할 계획이다.

유타주는 아이오와주 등 대부분의 콘벨트 지역에서 약간 서쪽으로 떨어져 있어 양돈여건이 비교적 좋지 않지만, 인근에 양돈장이 적고 인구 밀도가 적어 양돈장의 위생과 분뇨처리 측면에서 잇점이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EU, 돼지 공급량 증가

'96년 7월 영국을 제외한 주요 EU 돼지생산국가들의 돼지공급량이 증가했다. 영국에서는 주간 도축량이 6월보다 감소했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의 7월 돼지도축량이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네덜란드에서는 4% 증가세가 나타났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 국가들의 7월 돼지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모든 지역에서 돼지가격이 작년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96년 7월 EU의 표준품질 돼지의 평균중량은 1백킬로그램 당 1백83.849ECU로 6월보다 2.1% 증가했고 '95년 7월보다 29.6% 증가했다.

일본햄, 미국에 대규모 양돈장 개설

일본햄이 미국 텍사스주에 대규모 양돈장을 개설한다. 일본햄이 설치할 양돈장 규모는 일본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부지면적이 22,000㎡로 오는 '99년부터 연간 54만두의 돼지를 출하할 계획이다. 일본햄은 UR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2000년부터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저가의 돼지고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양돈장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총 사업비 약 1억달러(약 820억원)를 투자해 350동의 돈사를 짓고, 27,000두의 모돈을 사육하면서 연간 54만두의 비육돈(생체 환산시 약 27,000톤)을 출하할 계획이다.

일본햄은 일본 최대의 식육제품 생산업체로 현재 연간 60만두의 돼지를 일본국내에서 생산, 출하하고 있지만, 미국에 설립할 양돈장도 이에 필적할 만한 규모다.

스웨덴, 30년만에 독일에 도축용 돼지 수출

30년내 처음으로 스웨덴산 돼지가 독일에 수출되었다. 독일 도축업자들은 7월 중순 이후로 스웨덴산 돼지 약 1천마리를 도축용으로 수입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입돼지 한 마리당 스웨덴 시장 가격보다 많게는 9파운드까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스웨덴산 돼지의 독일 수출은 스웨덴 돼지 시장가격보다 약 20% 비싼 덴마크 시장으로의 수출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예상치 못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덴마크와의 돼지무역협상은 난항을 거듭한 반면에 독일과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돼 이번 거

래가 성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페인, 작년 돼지고기 10만5천톤 수출

지난 5년간 스페인 육류업계는 해외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95년에 육류 및 육류제품 무역흑자액은 22억5천만Pta(스페인 화폐단위)였다. 수출량은 20만3천8백60만톤, 7백61억2천만Pta였고 수입량은 14만4백27톤, 7백38억7천만Pta였다. 스페인 육류무역에서 돼지고기 무역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95년 육류 총수출량 가운데 50%가 넘는 10만5천3백14톤이 돼지고기 수출량이었다. 스페인산 육류는 주로 이웃국가들인 프랑스, 포르투갈에 의해 수입되고 있으며 기타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되고 있다.

한편 스페인은 돼지고기 수입량의 3분의 1 이상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양과 염소고기는 주로 영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 식육재고 사상최고

- 돼지고기 27만9천톤, 쇠고기 14만1천톤

일본의 식육재고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축산진흥사업단이 조사한 7월말 현재 식육재고량에 따르면 쇠고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7% 증가한 14만1천톤, 돼지고기는 27만9천톤으로 184.6% 늘어났다.

이처럼 쇠고기 재고가 급증한 것은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극심한 소비부진 때문이며,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량이 예상보다 많은 4만톤을 넘었기 때문으로 사업단은 풀이했다.